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토마이스 순교자

성지 주일(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성 안투사 수녀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성지 주일 제2응송 / 239. B 302
- 성지 주일 찬양송 / 239. B 303
- 성지 주일 입당송 / 239. B 304
- 성지 주일 찬양송 / 239. B 303
- 성지 주일 시기송 / 239. B 304
- 사도경: 필립비 4,4-9 / 239. 봉독서 462
- 복음경: 요한 12,1-18 / 240. B 305
- 성지 주일 성모송 / 비고정 축일 성가집 67
- 성지 주일 영성체송 / 241. B 307
- '주의 이름이 이제로부터' 대신 '성지 주일 찬양송' / 239. B 303
- 신랑의 예식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토마이스 순교자

불결한 욕구와 욕망을 사람의 영혼에 심어주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한 이성과 갈망하는 힘은 신성한 은총이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순결한 사람이 불결한 욕망에 맞서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결한 사람은 이러한 불결한 욕망에 육체의 희생과 죽음으로까지도 맞섭니다. 교회의 삶에 이러한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 토마이스 순교자의 희생은 더욱 생생합니다. 우리 교회는 4월 14일에 성 토마이스 순교자를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녀의 가정에서 끔찍하고 불결한 성범죄

가 발생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우리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이러한 기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 많은 경우 순결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희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녀는 죄의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순교의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의 짧은 생으로부터 순교는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죽음이 아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인 것입니다.

성 대주간과 부활절에 대한 공지

지난 2020년 3월 19일 한국정교회 대교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도록 4월 11일 라자로 부활 토요일까지 사회공동체를 위해 성당을 닫는다고 공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정부당국으로부터 새로운 지침이 나올 때까지, 대교구는 그 제한 기간을 더 연기한다고 공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 대주간과 부활절의 모든 거룩한 예배들은 성당에서 성직자와 협조자만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들은 자신과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에 머물러 있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거룩한 예배들의 실시간 영상을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수난과 영광스러운 부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축일 달력을 보면서 매일 성서 구절들을 읽어나가기기를 권고합니다.

하느님의 원하심으로, 5월 26일 밤 부활절 종례일에는 모두 성당에 나와서 함께 부활절 축일을 경축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회력에 따라 이 날은 부활절 이후 40일째가 되는 부활절 종례일로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네!” 부활 찬양송을 마지막으로 부르며 부활절 밤과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라자로 부활 토요일에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분들에게는,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오순절에 세례성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든지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이 없으면 대교구청이나 지역 성당으로 연락해주시요.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잃지 말고,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시편 130:6)을 노래한 다윗이 그랬듯이 주님께 희망을 둡시다.

지금 겪고 있는 이 큰 시련이 어서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기원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슬픔의 불구덩이로부터 “마침내는 숨 돌리게 건져 주실 것입니다.”(시편 66:12)

부활절 잘 보내세요!

한국정교회 대교구
2020년 4월 3일



공지 사항(2020년 4월 2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안타깝게도 아직 성당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도움으로 매일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http://www.youtube.com/user/KoreaOrthodox> 주소로 들어오시면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 거룩한 예배를 생중계하는 유일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당에서든, 가정에서든, 그 밖의 어떤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든 하느님에 대한 경외감과 경건함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는 기도 시간에 전념해야만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서의 “시중드는 데 경황이 없던”(루가 10:40) 마르타처럼 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예배들, 특히 성찬예배를 시청하는 시간에 우리는 체계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절한 기도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정의 기도처의 성화 앞에서, 등잔이나 초를 켜고, 향을 피우고 경건하게 성당에서 전송하는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큰 재난인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온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께 자애와 자비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기로 한 매일 밤(10:00~10:15)의 가정 기도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유익을 위한 건강 수칙을 정확히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성당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아멘.

한국정교회 대교구
2020년 4월 2일

소 식

대교구

■ 성 대주간 및 부활절 예식 시간표

- 4월 12일 성지 주일 오전 8:45 ▷ 조과 및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
오후 6:00 ▷ 신라의 예식
- 4월 13일 성 대월요일 오후 6:00 ▷ 신라의 예식
- 4월 14일 성 대화요일 오전 9:00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오후 6:00 ▷ 신라의 예식
- 4월 15일 성 대수요일 오전 9:00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오후 6:00 ▷ 성유성사
- 4월 16일 성 대목요일 오전 9:00 ▷ 대만과 및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오후 6:00 ▷ 주님의 거룩한 고난 예식(12복음 봉독)
- 4월 17일 성 대금요일 오전 9:00 ▷ 대시과(1, 3, 6시과)
오후 3:00 ▷ 9시과, 만과,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예식
오후 6:00 ▷ 에삐따피오스 예식
- 4월 18일 성 대토요일 오전 9:00 ▷ 대만과 및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오후 8:00 ▷ 부활절 예식 및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
- 4월 19일 부활 주일 오전 11:00 ▷ 사랑의 대만과

(대교구에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꼭 영상으로 시청하시면서 성 대주간과 부활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